

화재위험 많은 犯法 건물 안전위해 청거 조치

우리가 실시한 안전 점검 결과가 당국에 보내져 행정 명령화가 되고, 그 결과 화재 위험 요소들이 점차 개선되고 ... 이렇게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? 많은 당국의 행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물 소유자가 많다는 데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. 재중에는 "내 재산을 설마 허물어나? 맘대로 재바" 하는 식의 폐장파(?)도 없지않아 있다고 한다.

그러나 이런 건물을 "철거하라"고 명령, 실제로 허문 예가 있다. 우리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된 일이다. 오하이오주 프릭어리 타운십이라는 도시에 있던 비런 클럽 타워 아파트가 바로 그것.

이 건물은 볼드윈 주택 회사가 오하이오주 건축 당국의 허가를 받아 건축한 6층의 목조 아파트이다. 3백만 달러나 들여 만든 이 아파트는 2등으로 되어 있었는데, 준공이 도시 소방관들로부터 "이수하게 타워"라는 평을 받았다. 건물이 낡은 취약점을 안고 있어 두 번이나 화재가 발생, 소방관이 출동하여 진화한 일이 있기 때문.

마침내 이 도시 소방서장 잔 요비처즈씨가 1972년 명령을 내려 건물 사중 중단은 시도했으나 시공 회사도 이에 맞서 법정 투쟁을 벌였다. 그 결과 법규에 맞지 않는 곳을 다수 발견하고 화재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공 회사의 판정패로 끝났다. 재판에 소용된 기간도 5년간이나 되나, 마침내 이 건물은 3백만 달러나 되는 돈을 소비라고도 할터 버리고 만 것이다. 미국이 자유롭다고 하나 법을 안 지키는 걸로 눈감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.